

[2024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4.04.17.)

결 재	★◎담당	팀장											
	04/19	04/19											
	문지희	박선화											

회의일시	2024.04.17.(수) 11:00						회의장소	정곡관 10층 대회의실					
------	----------------------	--	--	--	--	--	------	--------------	--	--	--	--	--

회의소집 통보일	2024.04.11.(목)						작성자	문지희					
-------------	----------------	--	--	--	--	--	-----	-----	--	--	--	--	--

참석인원 현황 및 서명(11명)	의장	부의장	교원 평의원				외부 평의원			직원 평의원		조교 평의원	학생 평의원
		박선화	최영임	김미영	박정섭	백승은	이호근	문희태	안승권	한건환	이우준	송성환	김응찬
	<i>박선화</i>	<i>최영임</i>	<i>김미영</i>	<i>박정섭</i>	<i>백승은</i>	<i>이호근</i>		<i>안승권</i>	<i>한건환</i>	<i>이우준</i>		<i>김응찬</i>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불참	참석	불참

안건명	[제2024-2-1호] 2023학년도 학교비 회계 결산 자문(안)												
-----	---	--	--	--	--	--	--	--	--	--	--	--	--

회의 결과

[제2024-2-1호] 2023학년도 학교비 회계 결산 자문(안) -----원안대로 심의함

회의 내용

가. 성원보고

(간사 문지희) 재적의원 13분 중 총 10분이 참석하시어 2024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가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 개최선언

(의장 박선화) 2024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가 개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 회의진행

**김원기 행정처장, 성하중 총무팀장, 김미영 팀원이 안건설명을 위해 배석하다.*

(의장 박선화) 제2024-2-1호 안건은 “2023학년도 학교비 회계 결산(안)” 자문입니다.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장의 안건 발의 후, 김원기 행정처장이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배포된 요약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의원 김미영) 우리 대학의 실정이 정말 많이 어렵다라고 체감한 것이 등록금 수입이 29%이고 국고보조금 수입이 17%로 결산대비 46% 밖에 잡혀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대학 운영이 쉽지 않았더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남아있는 적립금이 165억 정도 있는데 그 적립금으로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버틸수 있을지, 또 처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수입이 투자와기타자산수입에서 150억으로 두배로 잡아놓고 지출에서는 절반으로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미사용차기이월로 나뉘었다는 말씀이신데 투자와기타자산 적립금 용도변경으로 건축기금을 퇴직기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건축기금을 특정목적기금으로 사용한 것이 60억인데 이게 무슨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배석 김원기) 우리 대학 적립금은 4월 15일 기준으로 165억 3,3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33억 정도는 건축기금으로써 사용할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133억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목적기금에 대한 용도변경 부분은 김미영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 김미영) 저희가 기금을 사용할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용도변경을 하는 목적을 다 각각으로 지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특정목적기금이 60억 정도 되는 것은 교직원 보수와 학생복지라든지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목적이 아닌 대학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사용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미영)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감사를 받으신걸로 아는데 어떤 결과와 피드백을 받았는지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4.04.17.)

- (배석 김원기) 내부감사를 통해 평생교육원에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 방법이 미비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외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 (의장 박선화) 통상 결산서는 원래 공표가 되는 것이죠?
- (배석 김미영) 네. 이사회까지 통과가 되면 홈페이지에 공시가 됩니다.
- (의장 박선화) 결산서나 예산서 자료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는 공표되기 전 자료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해당 부서로 가시어 열람하시는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안승권) 대학 경영에 관해서 이사회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학교의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결산의 목적이 우리가 1년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고드리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대덕대학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존을 해야하는지에 관한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고 내부에 계신분들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덕대학교가 어떻게 재정자립도를 높일수 있는가에 관한 의견들이 취합되어 이사회로 올라가서 이사분들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대덕대학교가 어떻게 혁신을 해야하는지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우준) 안승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결산금액이 336억이었고 올해가 338억으로 대동소이합니다. 불과 4-5년 전에는 600억대였습니다. 신입생등록율이 재작년에 58%, 올해가 63%정도입니다. 3-40% 가까이 등록금수입을 못채운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5학년도 학과 구조조정 사항 중 하나인 자율전공학부에 200명 정도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대학이 반등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도 RISE 사업과 연결되어 부분으로 잘 진행된다면 신입생등록율을 거의 90%까지는 끌어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김미영)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학에 전체 수입이 다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어느정도 밀받침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환경이 너무 어렵다보니깐 일반학생들로는 채울 수 없는 시점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은 너무 늦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유학생이 30명 들어왔고 다른 대학에 비하면 유학생 유치 실적이 전무합니다. 구조조정 결과에 의해서 자율전공학부를 새로 신설하여 자율전공에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입생 등록율을 100% 달성하지도 못하고 70% 이상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들도 많이 채워지고 있는데 성인학습자가 첫학기는 25세 이상 전액 장학금이라는 점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교육적인 내실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졸업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인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험실습비가 5억정도 사용되었는데 저는 인문사회계열에 있다보니 실험실습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한번도 지원받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험실습비가 어느학과 위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백승은) 그 부분은 등록금 자체가 다릅니다. 이공계열은 4-5만원 정도로 인문사회계열과 등록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김미영)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실험실습비를 전혀 쓰지 않고 기본 강의실 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의원님들도 계셔서 부끄럽긴하지만 강의실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입시홍보를 하려고 하면 고등학교 시설도 최첨단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얼마나 실망할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 입시자원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교육 환경부터 재정비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정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구현해서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최영임) 입시 자원의 다양화에서 외국인유학생이든 성인학습자든 지금 전문대학으로써 평생교육체제로 가기 위한 대대적인 학교의 방향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데려오면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나 학교에 유치시키기 위한 인력들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 지원제한대학으로 걸리면서 국가 재정지원사업을 3년동안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인 재정으로만 견뎌내다보니 굉장히 어렵고 시설투자도 거의 안되었습니다. 이

[2024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4.04.17.)

번에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잘 통과하여 내년 정부지원사업에서 국고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보수나 시설환경들을 채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안승권) 재정건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지출의 어떤 것을 높여서 수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것인지를 봐야합니다. 법인이 법인전입금을 많이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교원들은 대학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할 때 법인이 수익화가 되고 벌어들인 수입을 다시 전출하는 구조인데 지출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교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연구비, 연구활동인데 교원들이 하고있는 연구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사회가 고마운 마음으로 기부금을 내거나 대학이나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활용함으로 수익이 생기고 이런 구조가 잡혀야 합니다. 현재 지출구조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교원들이 연구를 안해서 연구비가 없는 것인지 연구를 장려하지 않아서 연구비가 없는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따올 수 있는 연구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무형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있는지에 관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형자산으로 부동산이나 건물이 있다고 보면 이또한 교원들이 혁신성을 접목시켜 가진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있을텐데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좀더 수치뿐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보면 더 좋은 혁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 박선화)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전체 의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자문하는데 동의·재청합니다.

(의장 박선화) 의안번호 제2024-2-1호 2023학년도 학교비 회계 결산(안)은 원안대로 자문하였습니다.

라. 폐회선언

(의장 박선화) 2024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타

1. 2024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참석현황 1부.
2. 대학평의원회 외부평의원 수당지급 계좌 및 참석확인 1부.
3. 전자이미지서명 사용동의서 각 1부.
4. 회의개최 관련문서 1부. 끝.